**로저 그린 박사, 종교 개혁에서 현재까지, 강의 10, 계몽주의**© 2024 로저 그린과 테드 힐드브란트

이것은 교회사, 종교 개혁에서 현재까지의 과정에 있는 로저 그린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10, 계몽주의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있어야 할 곳으로 여행을 떠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홀의 맨 끝, 맨 끝, 테이블이 있고, 우리는 테이블 주위에 앉을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우리는 강의에서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왔으니, 그것을 기뻐합니다. 강의 5, 계몽주의 시대의 신학은 우리가 물론 중세 로마 가톨릭교와 그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으로 과정을 시작했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그런 다음, 루터를 통한 종교 개혁, 특히 우리 과정에서 칼빈을 통한 종교 개혁은 중세 로마 가톨릭교에 대한 반응이며, 그에 대한 초기 반응입니다. 그런 다음, 종교 개혁에 대한 가톨릭의 반응, 반종교 개혁, 가톨릭 종교 개혁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다음, 마지막 강의에서 우리는 상당히 통합된 운동으로 시작된 개신교를 보았습니다.

제 말은, 루터는 1세대이고 칼빈은 2세대였습니다. 개신교는 그때 약간 분열되기 시작했는데, 분열의 원인이 된 두 가지 문제를 기억하세요. 교회 전례와 교회 정치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종교 개혁은 성공회를 형성했고, 성공회에서 결국 회중주의가 나왔고, 침례교와 침례교 중 일부는 유니테리언이 되었습니다. 사실, 회중주의자 중 일부도 유니테리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종의 교파주의가 확립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또한 교회론이 그 당시의 중심 논거가 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했습니다. 정당화와 확신이 종교개혁 시대의 중심 논거였다면, 종교개혁이 시작된 이 시기로 넘어가면 교회론이 그 시대의 중심이 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이제 5강, 계몽주의 시대의 신학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중심 논거, 어떤 의미에서 이 시대의 중심 이야기가 교회와 기독교에 대한 비판이라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의에서 제가 하고 싶은 것은 다양한 곳에서 일어나는 비판의 종류를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특히, 물론 서유럽에서, 그리고 여기 미국에서도요. 일어나는 비판은 기독교와 교회를 제쳐두고, 확실히 기독교와 교회를 제쳐놓습니다. 그리고 다음 강의는 교회가 그것에 대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글쎄요, 다음 강의는 교회에서의 복음주의 부활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 면에서 잘 해내고 있고, 이 강의를 시작하고, 금요일이 있고, 다음 주가 있고, 그 다음 주에는 이미 중간고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는 과정의 절반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행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좋아요. 소개로, 여기서 제가 할 일은 두 가지를 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 용어를 소개하고, 그 다음에 현대 철학의 부상을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이 과정에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묻고 싶은 것 중 하나는 신학과 철학의 관계가 무엇인가입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 용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아요, 우리 자신에게 상기시켜 드리죠. 저는 세 가지를 사용할 것입니다. 종교 개혁, 르네상스, 계몽주의.

개혁, 개혁이라는 용어. 그리고 개혁에 대한 것 중 하나는 어떤 의미에서 개인의 양심을 해방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중 일부는 자아의 해방, 즉 양심의 해방에 대한 질문에 답했습니다.

당신은 시험에서 그 질문에 답했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종교 개혁은 중세 로마 가톨릭교에 대한 반발이었습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재구성하고 교회가 무엇인지 다시 이해한 반발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교회 안에서는 사람들이 양심의 자유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생각할 자유가 있었습니다. 물론 교육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언어로 성경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언어로 설교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모두 교회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양심의 자유는 모두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1번은 종교 개혁입니다. 좋아요, 종교 개혁과 평행하게, 2번은 물론 르네상스입니다. 그리고 르네상스는 일종의 원래 출처, 그리스어와 히브리어 출처 등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했듯이, 그것은 인류와 인간의 능력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르네상스는 종교 개혁과 평행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르네상스는 또한 사람들에게 일종의 양심의 자유를 주었습니다.

르네상스는 또한 그들에게 어떤 의미에서 스스로 생각하는 특권, 양심의 자유를 주었습니다. 차이점은 많은 르네상스 사상가들의 경우,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 르네상스 사상가들의 경우, 양심의 자유가 그들을 교회 밖으로 데려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을 그리스도의 몸 밖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 행해진 종교 개혁적 사고방식과는 달리, 르네상스적 사고방식은 때때로 교회로부터의 해방이었고, 세속화나 인본주의와 같은 우리가 익숙한 용어를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용어가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르네상스에는 일종의 자율성, 일종의 인간적 자율성이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인간적 자율성은 그리스도의 몸, 교회와 별개로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르네상스 사상가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사상가에게 해당됩니다. 그래서 교회 내부의 종교 개혁과 르네상스는 교회 밖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세 번째, 물론, 이제 계몽주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계몽주의의 정의입니다. 계몽주의는 17세기에 시작된 계몽주의의 시기로, 이성의 시기이며 합리화의 시기입니다. 삶의 모든 측면에 이성을 적용하려는 의식적인 노력입니다.

그래서 저는 계몽주의를 이렇게 정의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삶의 모든 측면에 이성과 합리성을 적용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17세기를 이성의 시대라고 부르지만, 여기에는 일종의 경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이성의 시대라고 부르지만, 한 가지 작은 경고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 세기, 18세기에 모든 것에 대한 이성의 충분성이 의문시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신앙에 대한 이성의 충분성, 종교적 삶에 대한 이성이 특히 의문시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성, 계몽주의 시대에는 모든 것을 이성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성의 규칙을 모든 것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삶에는 일종의 선천적 조화가 있지만, 그 이성에 한계가 있을까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네, 여기서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때때로 삶의 모든 측면에 이성만을 적용하면 한계가 있을 수 있고, 종교에 관해서는 그 한계가 가장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종교에만 이성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뭔가 있습니다. 믿음은 어딘가에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는 시기가 바로 그 시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소개로 하고 싶은 것은 두 명의 철학자를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글쎄요, 세 명이나 네 명의 철학자를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두 명은 소개를 위해, 그리고 나서 다른 것들을 살펴보면서 다른 철학자 두 명을 더 언급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러분이 핵심 과목에서 철학을 수강했을 때 철학을 공부하던 시절의 두 철학자를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기억에 남을 두 사람은 아마 여러분이 결코 잊지 못했을 것이고, 여전히 여기를 읽고 있을 수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한 사람은 존 로크이고, 여기 존 로크의 날짜가 있습니다.

좋아요. 그럼, 존 로크에 대해 기억나는 게 있나요? 존 로크를 생각할 때 무엇이 떠오르나요? 존 로크를 생각할 때, 특히 우리가 사물을 이해하는 방식 측면에서 존 로크를 생각할 때, 무엇이든 떠오르나요? 맞죠? 맞아요. 맞아요.

저는 그렇지 않았고, 지금 정치 이론에 대해 그렇게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좋아요, 그게 당신이 그를 기억하는 한 가지이고, 루소 같은 사람들에 대해 알게 되면 알게 될 겁니다. 존 로크에 대한 다른 이야기가 있나요? 글쎄요, 존 로크, 사물에 대한 생각 방식, 이런 종류의 경험주의에 관해서, 존 로크에게 마음은 일종의 빈 종이와 같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마음은 일종의 빈 종이이고, 당신의 삶 속의 감각, 당신이 삶에서 배우는 것이 그 마음에 놓여서 당신의 마음에 인상을 남기고, 이런 식으로 계속됩니다.

그러나 존 로크가 이 과정에 대해 우려하는 한, 경험은 실제로 지식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경험은 지식의 가장 좋은 원천입니다. 존 로크에게 그와 다른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것은 자연스러운 계시일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신을 이해할까요? 우리는 자연 신학을 통해 신을 이해합니다. 우리는 신이 창조한 세상을 보면서 신을 이해합니다. 세상을 보는 그 경험이 우리 마음에 각인되는 인상이고, 우리는 그로부터 신에 대해 뭔가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출발점이 자연 신학이라는 것입니다.

출발점은 경험입니다. 출발점은 계시된 신학이 아닙니다. 따라서 토론의 출발점은 계시된 신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신에 대해 아는 방식이고,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발점이 다릅니다. 그리고 출발점이 다르다면, 종착점도 다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보기에, 로크가 보기에, 당신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의 출발점은 실제로 우리 안에 있고 신이나 교회에서 신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것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해지고, 17세기, 18세기에 등장할 철학이고, 발전하고 중요해질 겁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죠. 존 로크에게 합리성이나 합리성과 같은 단어를 사용하면 정말 중요해집니다. 이제 두 번째 사람은 임마누엘 칸트입니다.

임마누엘 칸트, 좋아요, 누구든지, 임마누엘 칸트에 대해 기억나는 게 뭐예요? 임마누엘 칸트에 대해 기억나는 게 뭐예요? 전혀요? 임마누엘 칸트 에 대해 생각나는 게 있나요? 파업에 대한 게 있나요? 존 로크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고, 임마누엘 칸트는 여기 왼쪽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루스, 임마누엘에 대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윤리, 맞죠? 그럼 그걸 이야기해 볼게요. 네, 중요해지죠, 맞아요, 윤리.

임마누엘 칸트에 대한 다른 이야기가 있나요? 좋아요, 좋아요, 어떤 의미에서 임마누엘 칸트는 계몽주의 시대에 성인이 된 인간을 대표합니다. 그는 그 시대의 완벽한 대표자입니다. 인류는 성인이 되었고, 인류는 어느 정도 성장했으며, 이성은 삶의 규범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이성을 사용하여 삶의 사물을 판단하고, 그것은 당신이 아는 것의 규범이 됩니다.

이성을 통해 알 수 있죠. 이성, 합리성, 성인이 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좋지만, 임마누엘 칸트는 이성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도록 돕는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성을 그렇게 중요하게 인식했을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그가 독일에서 경건주의라는 운동에서 자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경건주의, 우리는 다음 강의에서 경건주의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므로, 지금 경건주의에 대해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경건주의는 기본적으로 정신과 마음을 결합한 매우 훌륭하고 멋진 운동이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정신, 심장 없음, 모든 정신, 감정 없음, 하지만 신이 당신을 축복합니다라는 루터교 스콜라주의에 대한 반발이었지만, 경건주의는 그것들을 결합한 것입니다. 그리고 임마누엘 칸트는 경건주의에서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확실히, 그리고 그는 우리에게 이성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임마누엘 칸트의 신에 관해서, 당신은 이성으로 신을 알 수 없습니다. 당신은 신을 알 수 없습니다.

당신은 어떤 이유로 신에 대한 이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오직 믿음으로 신을 압니다. 그것은 당신이 신을 아는 종교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윤리나 도덕성 등을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도덕적 원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기억하십니까? 그 도덕적 원칙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는 사람이 있나요? 범주적 명령이라고 합니다.

기억나? 범주적, 신의 축복이 있기를, 범주적 명령. 그래서, 저는 범주적 명령을 좋아해요. 만약 당신의 행동이 보편화된다면 그 결과가 어떨지 생각해 보세요.

신이 당신을 축복하길. 그것이 절대적 명령입니다. 당신의 행동의 결과를 생각해보세요.

당신이 하는 행동, 당신이 하는 윤리적 일, 당신이 하는 도덕적 일을 생각해보세요. 만약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한다면 당신의 행동의 결과를 생각해보세요. 그것이 좋은 세상 일까요 , 아니면 나쁜 세상일까요? 당신이 기뻐하고 신이 기뻐하는 세상일까요, 아니면 나쁜 세상일까요? 그러니 신이 당신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의 행동을 보편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냥 당신의 행동을 보편화하고 그것이 좋은 세상인지 나쁜 세상인지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임마누엘 칸트에게 그것은 범주적 명령입니다.

그것이 윤리적 명령입니다. 그것이 당신이 인생을 판단해야 하는 방식입니다. 저는 잠깐 설명을 했지만, 신이 당신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신의 축복이 있기를. 이게 퍼지고 있지 않나요? 조금 뒤로 물러나려고 하는데, 임마누엘 칸트의 명령법과 당신이 언급한 윤리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하지만 당신이 말할 수 있는 것은 임마누엘 칸트가 신을 믿었고, 불멸을 믿었고, 내세를 믿었고, 등등, 하지만 그는 또한 덕이 있는 삶을 믿었고, 물론 당신의 행동을 보편화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종교를 윤리로 축소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교를 도덕적 삶, 윤리적 삶, 덕 있는 삶으로 축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종교 가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에는 환원주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환원주의로, 칸트를 따르는 어떤 사람들이 신과 성육신과 성령과 교회, 그리스도의 몸 등과 같은 다른 진리를 잊을 수 있을까요? 그런 다른 것들을 잊을 수 있을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예'입니다. 18세기에 많은 사람들이 다른 종류의 종교적인 것들을 잊고, 그저 덕이 있는 삶이나 좋은 삶만을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칸트는 읽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아마 수업에서 이미 알아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임마누엘 칸트를 떠올릴 때는 제가 길을 운전할 때 누군가 제 앞에 서서 차 창문을 내리고 맥주 캔과 담배나 맥도날드 물건을 도로변에 버릴 때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런 짓을 할 때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아? 이 사람들이 임마누엘 칸트를 읽었다면 절대 그런 짓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 왜냐하면 그들이 자신만 생각했다면, 모두가 그렇게 했다면? 모두가 길을 운전하며 창문을 내리고 모든 쓰레기를 버렸다면? 그 사람들조차도 그런 세상에서 살고 싶어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그들은 아마도 임마누엘 칸트를 읽지 않았을 거야.

그래서 아마 그들은 임마누엘 칸트를 읽지 않았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마 내 행동이 보편화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들은 아마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마다 저는 항상 임마누엘 칸트와 그가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할지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게 다입니다. 하지만 어쩌면 윤리를 강조하고, 도덕을 강조하고, 삶의 미덕을 강조하는 문제가 있을까요? 칸트를 따르는 사람들이 다른 위대한 진리나 종교적 진리를 무시하는 데 문제가 있을까요? 아마도 그런 문제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아요, 그럼 소개로, 우리가 기억하고 싶은 세 가지 용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두 사람이 우리가 이야기를 시작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현대 철학의 탄생입니다. 현대 철학은 이 문화 세계와 과학 세계뿐만 아니라 종교 세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면 철학과 신학의 관계는 무엇일까요? 로크와 칸트는 우리가 그 관계를 조금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여기에 있는 게 있나요? 괜찮은가요? 지금 13페이지의 노트를 보고 있다면, 제가 지금 하고 싶은 것은 계몽주의 시대가 어떻게 네 곳에서 이루어졌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그리고 미국입니다.

그럼, 이 네 곳을 간략히 살펴보기 위해,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고 싶습니다. 그럼, 영국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계몽주의에 대한 이런 종류의 이해가 영국에서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알겠습니다.

앗, 미안합니다. 여기서 몇 가지 용어를 생각해내야겠어요. 영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건 데이즘이라는 운동에서였어요.

좋아요, 이제, 신앙은 교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교파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개신교 교파가 아닙니다.

데이즘에 대한 생각은 결국 개신교 교파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데이즘 자체는 철학적, 종교적 관점에 더 가깝습니다. 따라서 데이즘은 실제로 17세기에 영국에서 시작되어 계몽주의 시대에 영국에서 꽃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미국으로 넘어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신에 대한 관점의 관점에서 데이즘을 생각할 때, 데이스트들이 가진 신에 대한 표준적인 관점은 어떤 것일까요? 신이 저 위에 있을까요? 그는 세상을 창조했고, 세상을 움직이게 했고, 그리고 나서 그는 뒤로 물러나서, 그가 만든 이 창조물의 감시자입니다. 종종, 그가 창조한 것은 시계를 만드는 신, 시계를 만드는 신입니다.

그는 시계를 만들고, 설치하고, 똑딱거리게 한 다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래서, 데이즘은 그런 것이었고,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것은 영국에서 시작되어 여기 미국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확히 하기 위해, 제가 언급하고 싶은 것은 신앙의 여섯 가지 측면입니다. 영국의 계몽주의 시대에 신앙이 형성되면서 신앙의 측면이 많이 생겼지만, 우리가 명확히 하기 위해 여섯 가지만 언급하고 싶습니다. 좋아요, 첫째, 신앙인들은 창조주 신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듯이, 그들은 일신교도였고, 한 분의 신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불가지론자나 무신론자, 다신교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창조주 신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유일신을 믿었습니다. 좋아요, 둘째, 데이스트들은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해 매우 높은 의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영국의 데이스트들은 영국의 칼빈주의자들과 예정론에 반발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의지의 자유를 믿었고, 그것은 영국의 종교 생활에서 중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제가 말해야 할 것은, 그것은 영국과 미국의 종교 생활에서 중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영국과 미국의 정치 생활에서도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의지의 자유로 인간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얻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좋아요, 세 번째, 데이스트들은 임마누엘 칸트처럼 덕이 있는 삶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도덕적 삶과 윤리적 삶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삶을 사는 좋은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반드시 성경이 그걸 말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만의 합리적인 사고방식이 그걸 말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 데이스트들은 내세를 믿었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데이스트들은 내세를 믿었지만, 그것은 꽤 모호했지만, 보상과 처벌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천국과 지옥을 어느 정도 믿었지만, 그것은 꽤 모호했지만, 내세는 존재하고, 덕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보상이 있고, 사람들에게는, 부도덕한 사람들에게는 처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그들은 이성의 중요성을 믿었습니다. 사실, 그들은 종교적으로, 그리고 물론 문화적으로 이성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문화적으로, 특히 정치적 삶에 관해서요. 그러니까, 좋아요. 여섯 번째, 그들은 자연신학의 중요성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자연 신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자연 신학이란 무엇일까요? 자연 신학은 신이 창조한 질서를 살펴보고 그 창조된 질서에서 몇 가지 결론을 도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신은 신의 창조물을 데이스트를 위해 살펴보고, 신은 질서의 신, 아름다움의 신, 디자인의 신 등입니다.

불행히도, 데이스트들은 자연 신학의 문제에 충분히 맞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자연 신학은 한 가지입니다. 오늘과 같은 날에 우리 캠퍼스의 우주의 아름다움, 질서, 디자인을 볼 때 , 아시다시피, 그것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자연 신학은 데이스트들이 믿었던 것처럼 당신을 조금은 안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에 상당히 의존했습니다. 그들이 충분히 씨름하지 않은 것은 쓰나미, 지진, 홍수, 흑사병을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자연 세계가 질서, 아름다움, 디자인의 신을 보여주지 않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당신의 자연 신학은 어디에 있는가, 알다시피요? 그래서 불행히도, 그들이 자연 신학에 크게 의존하는 동안, 저는 그들이 자연 신학의 한계를 충분히 다루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자연 신학은 우리를 그 정도까지만 데려갈 수 있지만, 저는 그들이 그것을 충분히 다루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들은 그것에 의존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국의 데이즘을 생각할 때, 그리고 그것이 결국 유니테리언주의라는 교파로 진화할 때, 제가 영국의 데이즘을 생각할 때, 저는 데이스트들의 여섯 가지 특징을 생각합니다. 이제 이 데이즘을 강조하기 위해, 저는 두 명의 데이스트 작가, 죄송합니다, 두 명의 데이스트 작가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들은 중요했습니다.

한 작가는 존 톨랜드라는 남자였고, 그의 날짜는 다음과 같았고, 그는 기독교는 신비롭지 않다는 책을 썼습니다. 기독교는 신비롭지 않다. 좋아요.

오, 그는 여기 세 번째에 있습니다. 기독교는 신비롭지 않다, 존 톨랜드. 그는 영국의 데이스트였고, 그의 책은 일종의 데이스트 선언문이었습니다.

그의 책은 일종의 신앙주의의 성경이었고 영국의 신앙주의 베스트셀러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시도한 것은, 제 말은, 제목은 꽤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기본 논제는 기독교에는 신비로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신, 기독교, 교회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이성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에는 신비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신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의 논제입니다. 그게 그가 책에서 주장하는 바인데, 좋은 데이스트적 주장이죠. 그래서 그는 계몽주의 시대의 모든 가르침을 가져와 기독교에 적용하고, 그의 책을 쓰고, 데이스트가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람 중 한 명인데, 그와 그의 책은 정말 심오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매튜 틴달의 책, 창조 만큼 오래된 기독교입니다. 창조 만큼 오래된 기독교 .

알겠어요? 그럼, 기독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창조만큼 오래되었으니 , 그가 보기에 이성은 종교의 시금석이에요. 종교 생활에는, 기독교 생활에는, 교회에는, 이성으로 알 수 없는 신에 대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성을 적용하고, 합리성을 적용하면, 알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종교가 무엇인지 이해하게 될 거예요.

좋아요. 이제, 그의 책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때, 그는 어떤 의미에서 책에서 두 가지를 책망합니다. 첫째, 그는 성경의 기적을 책망합니다. 왜냐하면 기적은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성적으로 설명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엄격한 자연 신학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버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없어질 것은 성경의 기적입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없어질 것은 신성한 계시에 대한 감각, 자연 세계를 통해서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신성한 신이 자신을 드러내는 감각입니다. 그러니까, 책에서 자신을 드러내거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 안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은 없어집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려는 것은 기독교를 창조만큼 오래되었다는 것입니다. 책의 제목은 창조만큼 오래되었고, 창조의 기록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연 신학에 반대하는 모든 것을 버리고 싶어합니다. 데이스트들은 성경에서 골라내는 데 매우 능숙했습니다. 그러니 창조 기록이 좋은 예라면, 창조 기록은 하나님이 질서 있게 창조한 것입니다.

하지만 성육신,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 죽음에서 부활하시는 예수, 그런 종류의 것들은 제외됩니다. 그래서 그는 골라야 합니다. 맞아요.

그들은 창조 이야기가 좋은 예라고 믿는다. 그들은 그렇다고 믿는다. 틴더는 일신교도였다. 그래서 그는 한 신이 창조되었다고 믿었다. 그는 성경에서 읽은 창조 이야기를 믿지 않는다.

그는 그것이 신이 창조한 방식을 잘 보여준다고 믿지만, 과학적으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에 대해 걱정하지 않습니다.

한 신이 창조했습니다. 그게 그가 생각하는 성경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성이나 합리성으로 그것을 확인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위에서 언급한 종류의 것들이 틴더가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죠, 이 사람들은 성경에서 많은 것을 골라내야 할 겁니다. 그들은 일신교도이기 때문에 성경 전체를 버린 것이 아니라, 골라내야 했습니다. 좋아요, 그럼 신앙론이죠.

그래서, 영국에서 계몽주의의 표현 방식은 신앙주의였습니다. 그것은 유니테리언주의로 진화했고, 그것이 신앙주의자들이 믿는 바였습니다. 그리고 만약 글을 쓰고, 설교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의 글이 우리의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다면, 오늘날 우리가 베스트셀러라고 부르는 그런 종류의 글이라면, 당신은 영국에서 계몽주의가 꽤 잘 번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말이 되나요? 누구든 이것에 대해 질문이 있나요? 저는 당신에게 데이스트를 믿으라고 요청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저 당신이 데이스트를 이해하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동의하나요? 그들은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신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믿고, 우리는 프랑스와 독일에 도착하면 이것을 조금 더 볼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가 좋은 도덕적인 사람이었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역사적인 사람이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특히 독일에서 예수의 역사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 데이스트들은 예수가 좋은 도덕적, 윤리적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사실, 그들은 당신이 예수를 따라야 하고 예수처럼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좋은 도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당신도 좋은 도덕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CS 루이스에서, 순수한 기독교에서 CS 루이스가 그에 대한 반박을 한 것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는 좋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처럼 되어야 합니다. 그냥 예수님을 따르세요. 당신은 좋은 사람이 될 겁니다.

C.S. 루이스 기억나? 그가 뭐라고 했지? 거짓말쟁이, 미친놈, 거짓말쟁이야. 그걸 가질 수 없어. 예수를 좋은 사람으로, 당신이 따라갈 사람으로 가질 수 없어.

예수에 대해서는 두 가지 선택만 있습니다. 그는 거짓말쟁이이고 미친 사람인데, 자신을 신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여기서는 정말 문제가 됩니다. 아니면 복음서 기자들이 신이 육신이 되었다고 말했듯이, 그는 거짓말쟁이이고 미친 사람 아니면 주님입니다. 하지만 이런 데이스트들이 예수에게 가지려고 하는 중간 지점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좋은 사람, 도덕적인 사람으로서, 당신은 예수님과 같아야 합니다.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어떤 의미에서 순수한 기독교로 이런 것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제 말은, 사람들은 CS 루이스 이전에도 그랬지만, 아마 우리의 독서에 관해서는요. 모두 Mere Christianity를 읽었나요? 그렇죠. 좋아요.

만약 당신이 그렇지 않았다면, 당신은 그것을 여름 독서 목록에 넣고 싶을 것입니다. 좋아요. 그럼, 데이스트들이 있습니다.

데이스트에 대한 질문이 있나요? 다 준비되셨나요? 좋아요. 그들은 깨달음을 가져와 종교에 적용했기 때문에 꽤 중요한 집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좋아요.

숫자 C는 프랑스입니다. 이제, 제가 프랑스에 사용하는 단어는, 제가? 제가 그것을 그 물건에 넣지 않았잖아요. 알았어요.

오, 여기, 여기 몇 마디가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있어요. 스콜라주의, 글쎄요,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데이즘은 유니테리언으로 진화했습니다. 우리는 아직 범신론을 얻지 못했습니다. 범주적 명령은 제가 칸트에 대해 이야기할 때 거기에 넣어야 했던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도덕적 명령, 범주적 명령. 어쨌든, 저는, 저는 생각했습니다. 18세기, 17세기, 18세기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떻게 다룰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정지 표지판을 놓았습니다. 마치, 저는 이 사람들 중 일부, 특히 지금 언급할 몇몇 사람들의 글을 읽을 때, 그냥 정지라고 소리치고 싶은 것과 같습니다.

다시 생각해 보자. 이 사람들이 우리를 역사적 기독교, 정통, 신학에서 꽤 멀리 인도했기 때문에 다시 논의해 보자. 그러니까, 좋아.

어쨌든, 그들은 거기에 있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프랑스로 가서 프랑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죠. 제가 프랑스에서 쓰는 단어는 자연주의입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쓰는 단어는 데이즘입니다.

프랑스에서 제가 쓰는 단어는 자연주의입니다. 그리고 18세기에 프랑스에서 일어난 일이 영국에서 일어난 일보다 훨씬, 훨씬, 훨씬 더 급진적이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훨씬 덜 절제되었습니다.

데이스트들은 꽤 절제되고, 합리적이고, 깨달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프랑스에서 일어난 일은 영국에서 일어난 일보다 훨씬 덜 절제되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제도적 교회에 대한 노골적인 종류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읽은 통계 중 하나는 프랑스 혁명 당시인 1789년까지 프랑스 땅의 4분의 1이 교회 소유였다는 것입니다 . 프랑스 혁명 당시 땅의 4분의 1이 교회 소유였습니다.

사람들이 제도적 교회에 대해 그렇게 화가 난 것도 당연합니다. 그들이 보기에 제도적 교회가 하는 일은 프랑스 왕족에게 세례를 주는 것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고, 물론 끔찍하고 끔찍하고 끔찍한 혁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매우 피비린내 나는 혁명이었습니다.

끔찍한 혁명입니다.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일어난 일은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다른 곳에서 일어난 일보다 훨씬 더 급진적이었습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 우리는 단지 몇몇 사람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첫째, 우리는 스피노자에 대해 언급할 것입니다. 좋아요, 그리고 스피노자의 날짜가 있습니다. 베네딕트 스피노자, 프랑스 사상가, 프랑스 작가.

그러니까 스피노자에 대해 알고 싶은 기본적인 것은 스피노자가 종교와 성경에 대해 매우, 매우 극단적인, 스피노자의 글을 읽어보면 알 수 있듯이 매우 극단적으로 비판적인 태도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데이스트들이 가졌던 것보다 성경에 대해 훨씬 더 급진적으로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가 유대인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스피노자가 실제로 발전시킨 것은 일종의 종교적 범신론이었습니다. 여기 네 번째 총알이 있습니다. 스피노자가 실제로 발전시킨 것은 일종의 종교적 범신론이었습니다.

그는 성경의 신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교회의 신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신성한 것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가 사는 세상에 뭔가, 어쩌면 신성함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범신론 은 그런 것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스피노자는 실제로 데이스트보다 훨씬 더 급진적이고, 우리가 자연주의라고 부르는 이 시기에 프랑스에서 철학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보여줍니다.

스피노자는 유대인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에게는 모두 흥미롭습니다. 그는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가 한 것처럼 급진적으로 행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급할 사람은 그뿐입니다.

우리가 언급할 두 번째 인물은 볼테르입니다. 볼테르는 스피노자보다 분명히 늦게 태어났지만, 그 주장을 훨씬 더 깊이 파고들어 18세기로 바로 끌고 갑니다. 알겠습니다. 볼테르의 경우입니다.

범신론. 범신론은 일신교를 부정하는 일종입니다. 그것은 한 분의 신, 그리고 세상에 창조된 한 분의 신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신성함이 반드시 신은 아니지만, 신성함은 이 세상에 있다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나무와 개울을 보면 세상에서 신성함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은 개울 속에 있는 셈이죠.

그는 나무 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는 산 위에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은 매우, 그것은 성경의 신이 아니에요.

창조하고 그의 창조물에 대한 권능과 권위를 가진 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종의 종교적입니다. 이것은 종교적 범신론이며, 신성함, 그것이 무엇이든, 성경의 신이라는 일종의 믿음입니다. 아닙니다. 그리스도입니까? 아니요.

성령인가요? 아니요. 하지만 신성은 어떻게든 우주에 존재한다는 거죠. 말이 되나요? 별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우리가 종교적 범신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게 그가 끝나는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도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만약 당신이, 내 생각엔, 만약 당신이 극단적인 범신론자라면, 당신은 자연 세계를 숭배하게 될 거예요.

제 생각에 만약 당신이 극단적으로 범신론을 취한다면, 만약 신성함이 그 나무에 있다면, 당신은 그 나무들을 숭배하기 시작할 겁니다. 왜냐하면 신성함이 거기에 있고, 신들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신성함이 그 개울에 있다면, 당신은 그 개울을 숭배하기 시작할 겁니다. 왜냐하면 신성함이, 그렇죠? 그게 말이 되나요, 제시? 그래서 그는 확실히, 그는 확실히 일종의 범신론으로 옮겨갔고, 확실히 교회가 가르치거나 성경이 신과 성육신과 같은 것에 대해 가르친 모든 것에서 벗어났습니다.

다른 것. 그는 볼테르에 비하면 온화했던 것 같아요. 저는 모든 사람이 볼테르에 비하면 온화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볼테르에게 종교는 정말, 제가 말해야 할까요, 도덕성과 윤리에 있어서만 단순하고 정말로 그저 그런 것일 뿐이었기 때문이에요.

그의 종교적 비전은 도덕성과 윤리적 삶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로 멸시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너무 강한 표현은 아니지만, 그는 기독교나 교회에서 나오는 모든 것을 멸시했습니다. 그는 교회의 가르침을 멸시했습니다.

사실, 그가 자신의 글 중 하나에서 한 유명한 대사 중 하나는 "불명예를 부수라"입니다. 글쎄요, 그 말은 교회를 부수고 교회가 믿고 가르치는 모든 것을 부수라는 뜻이었습니다. 그것을 부수고, 신과 성육신과 예수와 지역 교회 등에 대한 이 사업을 부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가 보기에, 그것은 모두 혐오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이제, 볼테르의 경우, 불행히도, 당신은 그의 글에서 매우 강한 반유대주의를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신과 성경과 예수에 대한 이 모든 일을 만들어낸 사람이 누구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모든 것을 만들어낸 사람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여기에서 매우 강한 반유대주의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저 일종의 사악한 공격일 뿐입니다. 볼테르의 공격은 기독교와 우리가 연구한 것에 대한 일종의 사악한 공격입니다. 제 말은, 심지어 신앙심이 깊은 신자들도 이런 종류의 공격에 굴욕을 당했을 것입니다. 신앙심이 깊은 신자들은 한 분의 신을 믿고 도덕적 삶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볼테르입니다. 좋아요, 두 번째입니다. 프랑스를 떠나기 전에 루소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좋아요. 루소는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루소에 대한 사실은 그가 프랑스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실제로 스위스에서 태어났지만 파리로 이사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과 글은 프랑스와 연관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루소에 대한 몇 가지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제가 언급하려는 것은 그에 대한 네 가지 사항입니다. 제가 루소에 대해 조금 더 오래 이야기한 이유는 미국 사람들이 루소를 많이 읽었기 때문입니다. 루소는 신세계의 공공 생활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몽주의 시대를 정리하는 측면에서 루소와 조금 더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저는 루소에 대한 한두 가지에 시간을 할애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루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에게 종교의 특징입니다. 그가 보기에 종교의 특징은 감정입니다.

종교의 특징은 내면의 삶입니다. 내면의 삶, 당신이 가진 느낌, 그것이 바로 종교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일은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는 이성의 한계를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이성의 한계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종교가 감정이고, 감정이며, 종교가 내면의 삶의 문제라면, 그는 합리성에 매우 집중했던 계몽주의 시대의 사람들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다. 즉, 이 첫 번째 요점에 따라 루소는 일종의 전환 인물이 될 인물 중 한 명이며, 계몽주의의 세계에서 합리성의 세계로 더 광범위한 문화를 옮기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19세기에 들어올 다음의 위대한 문화 운동은 무엇일까요? 이성의 시대가 아니라, 19세기에 들어올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낭만주의일 것입니다. 낭만주의는 감정 등에 기반한 일종의 문화 운동입니다.

그럼, 18세기 음악은요, 17세기 음악은요? 우연히 그 음악을 좋아하신다면, 헨델-하이든이 맞죠? 아마 음악 애호가들이 있겠지만, 제 제한된 생각으로는 매우 합리적이죠, 맞죠? 음악은 매우 합리적이고, 매우 합리적이에요. 하지만 19세기에 들어서서 차이코프스키와 다른 사람들의 음악을 접하게 되면, 음악은 훨씬 더, 맞죠? 훨씬 더 감정적이고 등등이죠. 그리고 예술 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 루소는 여기서 전환기적 인물일 수 있습니다. 그에게 종교적 삶은 데이스트처럼 이성적인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더 많은 감정, 더 많은 감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종의 한 가지입니다.

좋아요, 루소에 대한 두 번째 사항은 그의 글에 나와 있는 자연 세계로의 회귀, 자연으로의 회귀, 그가 우리에게 주는 고귀하고 야만적인 종류의 이미지입니다. 그는 우리가 자연 세계에서 더 많이 사는 것을 보고 싶어하고, 인류가 신흥 산업 세계의 이기심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그런 종류의 자연스러운 도덕성을 갖는 것을 보고 싶어합니다. 신흥 산업 세계의 사악함에서 벗어나세요.

싹트는 세상의 탐욕에서 벗어나세요. 자연 세계로 돌아가세요. 그 자연 세계에서 의도된 것, 등등. 글쎄요, 그게 1과 2입니다.

3과 4. 금요일에 3과 4를 할 텐데, 사실 3과 4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내용에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좋아요, 여기서 멈춰야겠어요.

이것은 교회사, 종교 개혁에서 현재까지의 과정에 있는 로저 그린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10, 계몽주의입니다.